

휴머니티를 담은 자연주의적 디자인 추구

국제적 감각을 바탕으로 한국적 디자인 개발

긴 소매가 무안하도록 후덥지근한 날씨와 흐릿한 하늘이 기분을 가라앉히는 징검다리 휴일의 사에 끼인 가을날 오후에 찾은 '썬디자인연구소'는 디자이너들의 국제적 감각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광주비엔날레 단체관람을 보내고 선정근 대표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금까지 포장업체나 제조업자들은 자기 상품의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개발·투자에 인색했으며 디자인은 더욱 관심 밖이었다. 이로 인해 포장디자인은 그래픽 중심의 아웃사이드한 포장디자인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포장산업에 있어 포장디자인은 그 역할과 비중이 작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술의 평준화와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포장디자인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10년 전까지만 해도 2~3명의 디자이너들이 운영하던 사설 디자인연구소들이 현재는 그 규모도 커지고 수도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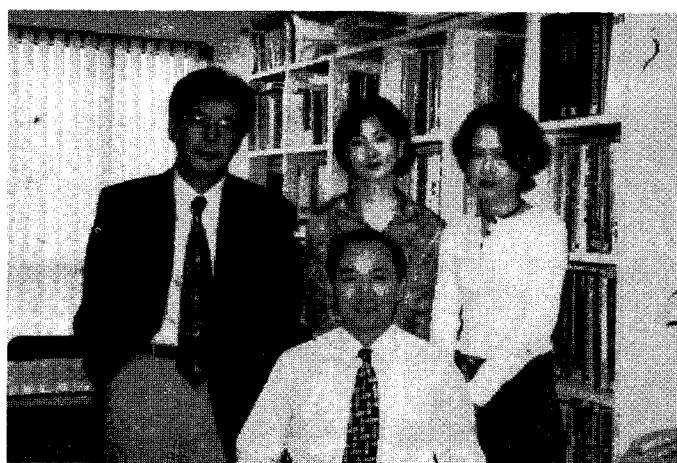
디자인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포장업체를 주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독자적인 노하우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풀리면서 대기업들이 포장업체의 많은 부분에 참여, 매체를 통한 판촉활

동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썬디자인연구소' 만의 스타일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존하고 있는 많은 디자인연구소들이 기성체제와 기존 패키지의 틀에 매여 창조적이지 못하고 그래픽중심의 작업에 치우치고 있는 경향이 있는 반면 '썬디자인연구소'는 3명의 상업적 그래피디자이너들과 2명의 공업디자이너들이 창조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독창성이 최대화된 한국적 디자인의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썬디자인연구소'의 선정근 대표는 "포장디자인이 이론적으로 서구적이고 외래적이기 때문에 그 형태들이 모두 도식적이어야 한다는 선입견이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도 팽배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지요. 서구적인 이론을 가진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디자인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썬디자인연구소'의 디자이너들은 포장디자인시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자연스러움이 강조된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프리한 서체를 디자인에 도입하고 보다 더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즉, 휴머니티 한 소재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디자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현 디자인업계가 깨뜨려나가야 할 타성과 '썬디자인연구소'의 디자인 방향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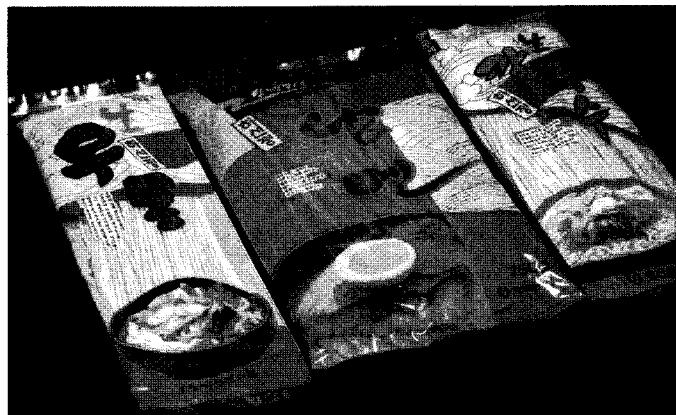
지금까지 포장디자인은 포장산업체의 발전속도에 맞추거나 시설의 터전이 마련된 후 이에 편승해 개발해 왔기 때문에 포장산업 전반에 있어 그 역할이 수동적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환경문제가 정치·경제·문화·산업 등 각 분야에 걸쳐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포장디자인은 그 재질이나 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 포장디자이너들 역시도 환경문제에 대한 자각은 물론 과거의 능동적이지



▲ '썬디자인연구소'의 디자이너들

WORK FLOW CHART

1	클라이언트 접견
2	디자인 회의
3	작업 개념정리 및 아트워크 착수
4	디자인 개념에 따른 Mock-ups 작업
5	클라이언트와의 상호 의견교환
6	채택된 개념에 의한 디자인 개발
7	수정·보완·개발된 디자인의 재정리
8	개발 디자인의 다각적인 시장반응조사
9	최종디자인 채택
10	생산공정상의 문제점 및 행정사항의 합리적 처리조정
11	시험생산 감독
12	생산관리



▲ 프리한 서체로 전통적 이미지를 강조한 하선정 식품류



▲ 실용성을 강조한 샘표의 '돼지불고기양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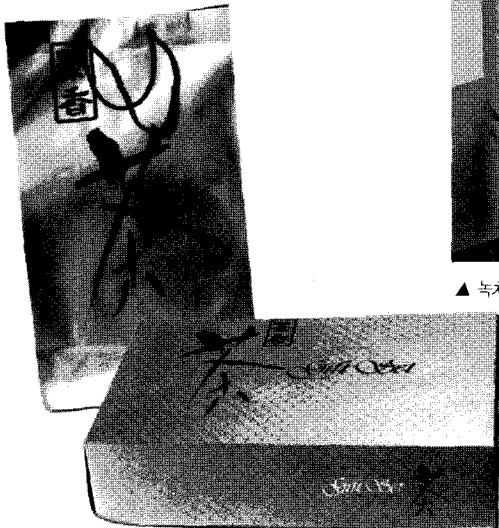
못한 자세에서 벗어나 포장업계의 당당한 한 주체로서의 제 역할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포장디자인이 포장산업의 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들의 시대감각과 이를 토대로 한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필수적인데 선 대표는 요즘 포장산업은 물론 여러가지 산업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를 지적하면서 “사실 디자인을 진행함에 있어서 종량제 이전보다 제한여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예로 일단 다양하던 재질이나 형태가 가장 눈에 띄게 제한이 많은 부분입니다. 또한 그 제조과정에서 오버코팅 등의 효과도 문제시되지요. 그 외에도 컬러도수, 형태변화에 따른 문제 등이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 견해로는 이런 문제들이 포장디자인을 진행하는데 큰 짐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썩지않을 것 같은 플라스틱도 생분해성 수지 등의 개발로 환경문제에 대응해가고 있는 것처럼 과학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으니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포장의 재질이나 제조과정 등이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환경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것처럼 포장디자이너들도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포장디자인의 가장 큰 역할은 그 상품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자의 구매욕을 증진시켜 제품판매를 촉진하는 것이겠지만 이제는 포장디자인을 통해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고취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설디자인 업체들은 대개 기업의 마케팅 부서와 연계하여 그 기업 제품의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마케팅 전

략과 그 이미지를 포장디자인에 어떻게, 얼마만큼 담아내는가일 것이다. 이를 위해 ‘썬디자인연구소’는 ‘썬디자인연구소’ 만의 WORK FLOW CHART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정보·마케팅 데이터를 구체화하기 위해 회사측과의 오리엔테이션과 생산·영업·기술영역에 대한 충분한 조사작업을 반드시 거치며 리서치조사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클라이언트와의 만남 속에서 논의를 통해 시안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 시안은 ART WORK 단계에서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걸러지게 된다.

‘썬디자인연구소’에서 개발한 디자인인 샘표 돼지불고기양념은 기존의 작은 유리병용기에 비해 높이를 키웠는데 이것은 제품 진열시 눈에 띄게 하기 위함이며, 제품 하단을 안쪽으로 좁게 만든 것은 제품을 거의 다 사용했을 때 남은 제품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인근 시장에서도 널리 판매되고 있는 또 하나의 디자인 개발품인 하선정 냉면제품디자인은 프



▲ 녹차의 고급스러움을 살린 설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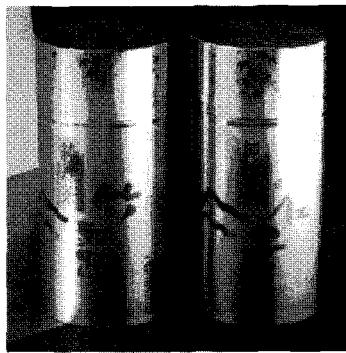
◀ 국산차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살린
Gift Set와 쇼핑백

리한 서체를 살리고 제품 조리시의 모습을 담아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였으며 전통적인 이미지를 담기 위해 노력한, P.E 재질의 제품이다.

또한 세계적인 텐트제조업체인 (주)진웅의 수출용 텐트포장디자인이 있는데 이는 기존의 단순한 디자인을 탈피, 국제적인 감각을 살려 색채를 다양화하고 텐트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최근 개발한 제품으로는 하선정 김제품이 있는데 제품의 이미지와 B.I를 살린 김 시리즈 포장이다. 역시 프리한 서체를 살렸으며 제품의 신선함을 강조하고 제품을 이용한 예를 포장에 담아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고자 하였다. 그 외에도 녹차의 고급스러움을 살려내기 위해 금·은 박을 사용한 설록차제품과 국산차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한지의 분위기를 살린 쇼핑백과 선물세트 포장 등이 있다.

사설디자인업체를 경영한지 벌써



는데 이를 위해 선 대표는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자신이 맡아 진행해오던 디자인의 경향을 탈피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제과디자인을 하던 사람이 다른 분야의 디자인을 하게되면 제과디자인의 분위기가 나기 마련이지요. 이런 경향을 벗고 다양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감각을 충분히 반영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디자이너들의 노력은 정보나 자료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자료들을 얼마나 빠르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겠지요”라며 디자이너의 자기개발에 대해 힘주어 말했다.

앞으로도 ‘썬디자인연구소’를 크게 키우는 것보다는 적은 인원이지만 자기 영역에서 최고의 디자이너들로 뭉친 연구소로 오래 자리잡고 싶다는 선 대표의 이야기에서 자기 영역에 대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인터뷰 전에는 흐릿하던 가을하늘이 상큼하고 시원한 바람으로 다가오는 귀사길이었다. ☺

윤지은 기자



▲ 하선정 김 시리즈 포장

감각개발과 후진양성 통해 포장산업 진일보에 기여

'썬디자인연구소'의 선정근 대표는 우리나라에 포장디자인이 거의 전무하던 60년대 홍익대학교에서 포장디자인을 전공하고 그 이후부터 줄곧 우리나라 포장디자인업계를 리드해 왔다. 지금까지 각종 포장전의 심사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서울패키지디자인협회(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전신) 회장,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포장디자인 지도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자문위원, 한국포장디자인학회 부회장, 전남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로서 우리나라 포장디자인업계의 한 모퉁이를 든든히 받쳐나가고 있다.

'썬디자인연구소'를 방문해 선 대표의 포장디자인업계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과 그 의지 및 포부를 들어보았다.

포장디자인 분야에 몸담게 된 시기와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 제가 홍익대학교 도안과를 졸업할 무렵만 해도 디자인 분야에 대한 윤곽이 불분명할 때였습니다. 게다가 국내에 디자인과 관련된 자료도 턱없이 부족할 때였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포장디자인을 전공했던 당시 월남전이 한창이었는데 파월 군인들에게 보낼 식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의 장기보존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수입해 보내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이의 필요성에 의해 재일교포가 우리나라에 처음 설립했던 삼화제판(주) 디자인실에서 12년간 디자인실장으로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포장디자인업계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으로 연수도



▲ 선정근 '썬디자인연구소' 대표

가게 되고 포장디자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활력소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 전남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후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현재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후진양성을 위해 무단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후진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한다면 우리 후진들이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감각의 산물인 디자인을 올바로

인식하여 국제적인 감각으로 다가서지만 가장 한국적인 스타일로 소비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포장디자인의 개발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설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우리나라에 포장디자인이 거의 전무할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포장디자인을 리드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도 끊임없이 감각을 키우고 새로운 포장디자인의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후진양성에 박차를 가하여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품구매시 소비자들에게 그 상품의 정직한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는 포장디자인의 가치를 일깨우고 연중 계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인력개발과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낸다면 포장디자인업계는 물론 우리나라 포장산업의 진일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K]

윤지은 기자